

[어휘 · 어법 수능기출 문제 I] 정답 및 해설
- 어휘의 사전적 의미 -

1. ①경시하다→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. ②간과하다→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. ③물 각하다→아주 없애 버리다. 무시해 버리다. ④무시하다→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. ⑤묵과하다→잘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넘기다. 답 ②

2. ①순응하는→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,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. ②순종하는→순순히 따름. ③적응하는→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. ④동화하는→성질, 양식(樣式),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. ⑤복종하는→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. 답 ①

3. ①장쾌(壯快)하다→가슴이 벅차도록 장하고 통쾌하다. ②침중(沈重)하다→성격, 마음, 목소리 따위가 가라앉고 무게가 있다. ③냉혹(冷酷)하다→차갑고 혹독하다. ④엄숙(嚴肅)하다→분위기나 의식 따위가 장엄하고 정숙하다. 말이나 태도 따위가 위엄이 있고 정중하다. ⑤은은(隱隱)하다→소리가 아득하여 들릴 듯 말 듯 하다.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다. 답 ④

4. ①여파(餘波)→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. ②정세(政勢)→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. 정세(情勢)→일이 되어 가는 형편. ③사조(思潮)→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. ④여론(輿論)→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. ⑤풍문(風聞)→바람처럼 떠도는 소문. 답 ④

5. ① 혼란(混亂)→몹시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함.(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.)
 ② 혼잡(混雜)→무질서하게 뒤섞여 몹시 복잡됨.(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함.)
 ③ 혼란(混亂)→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 어질어질함.(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.)
 ④ 혼돈(混沌)→뒤범벅이 되어 구별이 확실하지 않음.(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.)
 ⑤ 혼동(混同)→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됨.(서로 뒤섞이어 하나가 됨.)
답 ④

6. ①독단(獨斷)→남과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. ②아집(我執)→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. ③애착(愛着)→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아니함. ④자만(自慢)→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. ⑤집착(執着)→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. 답 ②

7. '의장(意匠)'은 '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는 것.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'의 뜻이므로 ④'공예품의 외적 모양이나 색채'에 해당한다. 답 ④

8. '역량(力量)'은 '깊이 헤아리는 마음'이 아니라 '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'을 의미한다. 답 ⑤

9. ⑤'비견(比肩)'은 '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,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함을 이르는 말'이다. 답 ⑤

10. '가공(架空)'은 '1. 어떤 시설물을 공중에 가설함. 2. 이유나 근거가 없음. 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냄.'의 의미이므로 ①'일부러 꾸며 놓음'에 해당함. 답 ①

11. '담보(擔保)'는 '말아서 보증함, 또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빚 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제공하는 보장'의 의미를 지닌다. 답 ②

12. 문맥상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, <보기>의 () 안에는 '개선', '진보', '향상', '발전' 등의 어휘들이 들어가야 적절하다. '개조(改造)'란 '고치어 다시 만들'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,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. 답 ①

13. '지식(知識)'은 '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'의 의미로 '생각'에는 속하지 않는다. 답 ⑤

14. ㉠의 기본형인 '드러나다'는 '겉으로 나타나다'는 뜻으로 굳이 한자어로 바꾼다면 '노출(露出)되다'나 '노정(露呈)하다' 정도가 된다. 따라서 ㉠을 '천명되기도'라고 바꿔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. '천명(闡明)되다'는 '드러내서 밝히다'는 의미를 지닌 '천명하다'의 피동형이다. ㉡ 습득(習得)하다 :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다. ㉢ 의거(依據)하다 :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. ㉣ 형성(形成)되다 :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다. ㉤ 별개(別個)의 : 서로 다른, 서로 관련성이 없는. 답 ①

15. <보기>에 제시된 사례들은 두 단어로 표현된 것을 접사를 사용하거나 합성에 의해 같은 의미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. '세게 밀었다'는 '밀다'에 '-치-'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'밀쳤다'로, '몹시 붉었다'는 '붉다'를 '-디-'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해 합성어로 만들어 '붉디붉었다'로 표현한 것이다. 이때 의미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. ㉤에서 '심하게 싸웠다'는 두 단어를 '싸움질했다'는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. 즉, '-질-'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행동을 저급하게 표현하는 의미를 덧붙여주기 때문이다. 이는 '심하게 싸웠다'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. ㉠ '크다'에 '-다랗-'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되었다. ㉡ '찾았다'에 '-되-'라는 접두사가 붙었다. ㉢ '들었다'에 '-엇-'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. ㉣ '디뎠다'에 '-헛-'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. 답 ⑤

16. '사이사이'는 '사이'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'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틈이 있는 데마다'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. 마찬가지로 '걸음걸음'은 '걸음'을 반복함으로써 '걸음을 걸을 적마다, 걸음마다'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. 또 '사이사이'에 담긴 '여러 개의 사이'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듯이 '걸음걸음'도 '여러 걸음들'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. 나머지는 '-마다'와 결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, '대강들'(x), '바싹들'(x), '멀리들'(x), '가득들'(x)처럼 복수적 의미로 표현되지도 않는다. 답 ①

17. '창출하다'는 '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지어냄'을 뜻하는 말이다. 따라서 ㉡는 '만들어 내는'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. 답 ②

18.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'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'를 고려하면 ㉠'그저'의 문맥상 의미는 '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'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다. 답 ③

19. ㉠은 앞의 말을 인정하는 말로 '예' 또는 '그렇다'로 바꿔 쓸 수 있다. ㉡는 '그러하다(그렇게 생각하다)'라는 뜻이고, ㉢는 '그렇게 하는', ㉣는 '그와 같이 했다'는 뜻이다. ㉤도 '그렇게 했다'는 의미이다. ㉠만 '예'라는 긍정의 뜻이고, 나머지는 모두 '그와 같다'는 의미이므로 사전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㉠이다. 답 ①

20. '행동이나 사태,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'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단어는 ㉣'슬몃슬몃'이다. ㉠'가만가만'은 '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없는 모양' 또는 '드러나지 아니하게 살며시 하는 행동'의 의미이다. ㉡'너울너울'은 '부드럽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양'이라는 뜻이고, ㉢'스멀스멀'은 '살갓에 작은 벌레가 기는 것처럼 근질거리는' 것을 의미한다. 또, ㉤'어른어른'은 '무엇인가 선명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' 것을 의미한다. 답 ④

21. ㉠에서의 '뒤'는 접두사로 '몹시, 함부로'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. ㉢에서의 '뒤섞어' 역시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.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사례로는 '뒤흔들다, 뒤틀다'가 있다. 접두사 '뒤'는 이 밖에도 '반대로, 뒤집어'의 의미(뒤엎다, 뒤바꾸다)와 '온통, 전부'의 의미(뒤덮다)를 지니기도 한다. 나머지의

‘뒤’는 선후에서 ‘후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. 답 ③